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종합평가 최고성적 거뒀

노후 농기계 교체해 더 나은 임대서비스 제공

담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상위 1 그룹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상위 1 그룹에 포함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비로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발농사 중심 농기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는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올해 세 번째 시행되었으며, 전국 142개 시군의 466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평

가를 진행했다. 이번 결과는 전담인력 현황, 발농사용 임대농기계 보유율과 임대실적, 정책 참여도와 수행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현장 방문 면접조사, 농업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다. 담양군은 평가 결과 전담인력 확보, 발농사용 임대농기계 임대율, 농업인 안전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3억 원은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구입비로 활용해 농기계 고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다 질 높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로 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가 올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임대농기계를 꾸준히 확보해 지역농업인의 임대사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함평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영옥)는 지난달 30일 함평엑스포공원 금호아시아나관에서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평등을 일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함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행사는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조성에 대한 법관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함평 지역 여성단체회원 등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으랏차차 나눔 봉사단'의 식전공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헌장 낭독,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나윤수 권한대행은 "양성평등은 지역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가치이자 동력"이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남녀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군, 제1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영광군은 지난 7월 31일 영광읍 남천리 남일경로당에서 '영광군 제1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남천리 1구 이장 및 마을주민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7월 17일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취지를 알렸으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 10명에게 전문교육

을 이수한 치매안심관리사를 주 1회 파견하여 일상생활 관리를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가 치매환자의 비용과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마을을 추천받아 매년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마을 관계자와 협업체 노인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을 특성을 반영해 경로당에 치매관련 도서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치매예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여름 대표축제 '장흥 물축제' 성료



관광객 51만 명 다녀가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지난 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장흥군은 올해 물축제에 51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다.

개막 초 막바지 장마의 영향으로 흥행을 염려했던 주위의 예상을 뒤집고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올해 물축제는 '젊음이 물씬, 장흥에 흠뻑'이란 주제로 탐진강과 편백수 우드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졌

다. 장흥군은 물의 도시 장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축제에 역사와 문화의 색채를 덧입혔다.

7월 27일 펼쳐진 살수대접 거리 퍼레이드에는 1만 명이 넘는 구름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올해 살수대접 퍼레이드는 안중근과 물이 만나는 역사 퍼레이드로 진행됐다.

축제 기간 내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의 지역 축제 검색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물축제는 매년 행사 수익금의 대부분을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와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하는 착한 축제로 알려져 있다.

올해도 행사가 막을 내린 1일 오후 물축제장에서 기념달식이 열렸다.

장흥=박순철 기자

나주시, 8개 마을 농촌체험여행 운영

나주시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심신 치유를 위해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주요 관광지들을 연계하는 '농촌체험여행'을 시범운영한다.

농촌체험여행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진을 위해 조성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별 특색을 살린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주요 관광지 탐방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3회 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세지면 화담마을, 노안면 이슬촌·금안한글마을, 산포면 흥련마을, 문평면 명하죽빛마을, 다시면 동

피골마을, 왕곡면 예코왕곡마을, 덕실마을 총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주해온 도시민과 마을 주민 간의 교류 증진을 물론, 농촌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역 상생 기반을 닦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 시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여행을 첫 시범 운영했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배나무를 활용한 나만의 배나무 정원 만들기(예코왕곡마을), 연 씨앗 발



아 체험(산포 흥련마을), 빛가람정관대 견학, 모시 및 한글귀기 만들기(노안 금안한글마을)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8개 마을의 특색을 살린 알찬 프로그램과 마을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도시민들의 심신 치유는 물론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주=박순철 기자

화순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화순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개인위생 관리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섭취와 환자 접촉으로 전파되는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 발병이 유행하기 쉽다. 또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여서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를 위해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를 실천하고 냉장·냉동 식품 조리·보관 등 위생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외출할 때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모기 기피제를 4시간 간격으로 뿌려주면 좋다. 집 주변 고여

있는 물이 없도록 관리하고 야외 풀숲, 물웅덩이 주변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고 어패류 익혀 먹기 등으로 수족구증과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포장된 물과 음식물 등 안전한 식·음료 섭취하기,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여행할 때는 A형간염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기타 감염병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379-5342)으로 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호응 높아

장성군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각종 건축민원에 대한 결정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건축허가 사항을 예고 받은 해당 지역민들이 건

축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위험·미관 저해 요인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은 건축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방지대책 수립에 반영되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는 데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만, 군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더라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비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수렴 절차에서 배제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해 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 장성군 안팎의 주민 목소리다.



광주교육!

아이들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습니다.